

제2차 G77+중국 정상회의 개최 결과

I. 핵심요지

- 제2차 G77+중국 정상회의가 개발, UN개혁, 세계화 등 분야에서 남-남의 공동 입장을 천명하는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과 이의 실천을 위한 도하 행동 계획(Doha Plan of Action)을 채택하고 5.16 폐막됨.
- 제2차 G77+중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상기 도하 선언은 개발부문에서 천년개발목표(GNI의 0.7% 개발원조)달성, 개도국에 대한 부채경감, 개도국 상품의 시장접근 개선, UN개혁시 개발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주로 선진국들의 의무 촉구 및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 증진 필요성을 열거하고 있음.
- 관심이 두어졌던 UN안보리 개혁 문제는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선언에서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며, UN 개혁이 다자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회원국들의 결정에 대한 논의와 이행에 있어 민주적 성격과 투명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중국 및 중소개도국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다소 UFC측 입장에 경도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주목됨.
- 금번 회의에서 카타르는 개최국으로서 77그룹 내에 경제, 사회, 보건, 교육 분야의 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기금(The South Fund for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창설을 주도, 2천만불의 기금을 공여하고 기타 개발원조관련 MDG 목표달성을 명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77그룹 차원 내에서 카타르의 위상 제고는 물론 앞으로 동 그룹내에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상기 기금에는 중국과 인도가 각 2백만불 기여를 약속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함.

II. 도하 선언 주요 요지

1. 개발

- 외부로부터 원조를 이유로 개도국에 대한 강제적 경제조건, 법규정 부과 및 일방적 경제제재 반대
- 남-남간 경제협력은 남-북간 협력의 대체로서가 아닌 보완이라는 인식하에 남-남간 협력의 심화와 활성화를 위한 남-남 국가간 노력 촉구
-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UN 정상회의에서 개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과 이를 위해 아래사항 이행 촉구
 - 원조국들의 개발 원조액이 MDG에서 목표치로 합의된 국민총소득(GNI)의 0.7%를 달성토록하고 이 중 0.15~0.2%가 최저개발국에 사용되도록 공여국들의 노력 촉구
 - 원조 제공시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피원조국들이 개발 전략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공여국, 국제기구 및 민간분야에서 빈곤처방 등 국제적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 단결기금(World Solidarity Fund)을 운용할 것을 촉구
 - HIPC에 대한 부채 전면 탕감, HIPC initiative의 확대, 기타 LDC 및 중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부채 해결 등을 통해 모든 개도국에 대해 부채를 경감하고 개도국의 부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율적, 포괄적, 지속적, 개발지향적 해결책 채택 필요성 강조
 - 교역부문에서 개도국의 비교우위가 어떠한 형

태의 자의적이고 남용적인 보호주의 조치에 침해되지 않도록 개도국의 공산품 및 서비스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 접근 개선

- UN 정상회의에서 개발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개도국의 필요 이해가 확보될 수 있는 도하 개발 라운드를 조속히 체결토록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 촉구

2. UN 개혁

- UN헌장에서 부여한 총회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며 UN의 주 의사 결정 대표기구로서의 총회의 중심적 위치를 확인한 천년정상회의 선언(Millennium Declaration) 지지
- 국제적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UN기구 강화를 위해 UN개혁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
- UN 개혁은 다자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UN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에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구에 부여해야 하며 회원국들의 결정의 토론과 이행에 있어 민주적 성격과 투명성을 보장
- UN개혁과정에 있어 개발영역이 주 영역이 되어야 하며 국제문제 결정 및 국제경제규칙 제정에 있어 개도국의 완전한 참여 보장 촉구

3. 세계화(Globalization)

- 세계화가 개도국들에게 불평등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소득격차 및 빈곤이 확대됨에 우려 표명
- 개도국이 세계화 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

제화 과정에서 개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는 국제적 전략 필요

4.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대처

- 개도국에 대한 자연재해 발생증가 및 동재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표명
- 자연재해 예방, 대처, 피해최소화를 위한 범국가, 범지역, 범국제적 메카니즘 창설지원 촉구
- UN 및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자연재해 영향하에 있는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약속 실현

5. 지역정세

-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요구
- 시리아의 경제제재에 대한 우려 표명
- 이라크 정부창설을 환영하고 마드리드 이라크 원조회의에서 약속한 의무 공여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결권 및 독립국가설립권리를 확인하고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점령 조속 해제 촉구
-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항공주권침탈 중단 촉구

6. 기타

- 차기 제3차 회의는 2010년 아프리카에서 개최

Ⅲ. 관찰 및 평가

- 금번 표제정상회의는 최근 G-8국가들이 7월 정

상회의를 앞두고 LDC국가들에 대한 부채 탕감 방안을 제시하여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개발문제에 대한 G-8 회의 및 9월 UN 정상회의의 관심을 환기하고 개발문제를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봄.

- 금번 정상회의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 서구 선진국들의 원조 의무 이행 촉구, 차별적인 국제경제질서,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 강조 등 국제질서 인식에 있어서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간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재확인해주었음.

- 또한 금번 정상회의는 아랍국가 중 하나인 카타르가 개최하고 바레인, 팔레스타인 등 아랍계 정상이 많이 참석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아랍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음도 주목됨.

- 금번 회의에서 카타르 Hamad 국왕은 의장으로서 동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기금 창설을 주도하고 2천만불의 기금을 공여함으로써 77그룹의 지도자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성공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나 한편으로는 동 기금에 대한 여타국들의 호응 부족, 선진국들의 무관심 등에서 보듯이 개도국들만의 모임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이 관측됨.

- 금번 정상회의의 행동계획에 남남협력차원에서 제외된 각 참가국들의 사업 중에 북한이 아래 3가지 사업을 제외했음이 흥미롭게 관찰됨.

① 개도국에서의 가뭄과 홍수 피해 보호를 위한 관개 및 하수처리 시스템 설계 훈련(Training of

Designers of Irrigation and Drainage
System for Protecting the Drought and
Flood Damages in Developing Countries)

②개도국의 표준화 및 기상 전문가 훈련
(Training of Experts of Standardization
and Meteorology of Developing Countries)

③개도국의 소규모 수력발전 건설 및 운영 전문가
훈련(Training of Expert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mall-Size Hydro-
Power Plants of Developing Countries)

□ 금차 표제회의에서 유엔개혁문제 관련, 약소국들
의 입장을 폭넓게 민주적으로 반영한다는 명분으
로 안보리보다는 유엔총회의 권능 강화를 거듭 강
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G-77국가들에 대한 교섭
시, 이를 G-4국가에 대한 대응 논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주카타르 대사관]